광주지검, U대회 조력 '톡톡'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폭력 등 9개 범죄 단속 강화
소외층·다문화 관람 지원도

광주지검 검사와 직원들이 U대회 기간 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다.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검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 최대 행사인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개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을 시작으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도 발벗고 나서는 등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발한 활동을 벌여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검사장 김해수)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 성공적 대회로 치르기 위한 법질서 준수 문화 확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 것을 비롯, 대회 기간 'U대회 지원단(단장 김희준 차장검사)'을 발족,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검찰은 우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광주교통문화혁신과 선진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관협약식 및 배려운전 실천 선포식' 등에 적극 참여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광주를 찾는 143개국 1만3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광주의 도시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또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구상에 따라 대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폭력·강력, 성폭력·풍속, 지적재산권, 식품, 환경, 조직폭력·마약, 외국인·출입국, 도박·사행행위 등 9개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메르스 여파 등으로 개최 분위기 고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전 직원 1인 1 입장권 갖기', '대회 홍보 티셔츠 단체 구매' 등 '붐업' 활동을 벌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소년원 출신 청소년,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게 경기 관람을 지원하는 '세심한' 활동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해수 광주지검장은 "광주지검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야시장 외국인 손님 광주 2015하계유니버시아드가 절정이던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 야시장에서 스웨덴 선수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가판대를 둘러보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U대회 끝나도 경기장 '자린고비' 전략 유지

광주시, 수익시설 확충·민간 위탁으로 재정 부담 최소화

광주시가 저비용·고효율·친환경 방식으로 치러진 광주 U대회의 '자린고비' 전략을 신설 경기장 사후 활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수익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위탁 등을 통해 관리·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U대회 신설 경기장은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804억원), 남부대 국제수영장(662억원), 광주국제양궁장(237억원), 진월국제테니스장(376억원) 등 4곳이다. 시는 U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37곳 중 33곳은 기존 경기장을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4곳만 신설해 대회 개최 비용을 최소화했다.

특히 신설 경기장 2곳은 대학 내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지 매입비를 절약하고 운영도 대학 측에 맡기는 등 사후 운영부담도 덜어내는 방식을 적용했다.

남부대국제수영장과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은 전문체육인 육성 훈련장,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수익사업을 위한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남부대 수영장은 2019년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주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용역도 진행중이다.

국제 규격에 맞춰 신설된 남부대수영장은 국내외 각종 수영대회 유치, 대한수영연맹 시설 활용 등을 비롯한 공연, 판매, 전시장, 음식점, 문화센터 등을 유치해 수익 극대화에 나선다.

손연재가 금빛 연기를 펼친 광주여대 체육관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 콘서트, 박람회 등 공연시설, 판매시설, 전시장,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해당 대학과 협약을 맺어 시설 운영을 맡기고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적자가 날 경우 10%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시설을 관리하는 대학들의 알뜰한 운영을 유도해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광주국제양궁장은 광주시체육회가 위탁운영하며 실내 연습실, 관련단체 사무실 입주, 시민 개방축구장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진월국제테니스장은 국내외 테니스 대회 유치와 관련 단체 사무실, 독서실, 오락과 주민자치활동의 장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

이밖에 광산구 장암마을 보라매축구공원은 5만8000여㎡규모를 선수훈련장과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U대회 시설물은 사후 활용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공익적 기능 유지와 함께 적정수익을 유지하는 공간으로 활용,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전당' 운영 정부 조직 20일 출범

예산 확보 등 총괄…전당장 등 정원 50명 구성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 기구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20일 공식 출범한다. 〈관련기사 5면〉

16일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문화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속 조치로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전당 조직)이 출범한다. 이 조직은 문화전당 운영, 예산 확보 등 문화전당 업무를 총괄한다.

전당 조직은 전당장을 두고 4과, 정원 50명(전문 계약직 공무원 18명 포함)으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전당 조직 출범 이후 공개모집을 거쳐 문화전당을 맡을 전당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계약직 공무원 18명도 선발할 예정이다.

전당장 선임 전까지 문화전당 개관준비 업무는 현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직무대행 등 형태로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문화전당의 일부 업무를 전당 조직으로부터 위탁받을 '아시아문화원' 출범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현재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축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구성될 조직이다.

추진단과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 인력수요와 문화전당의 업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진단은 이 자리에서 문화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원 인력이 250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아시아문화원 인력규모를 놓고 협의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정원 40명 가운데 32명은 전당조직, 나머지 8명은 문화부 대중문화산업과로 배속된다.

그러나, 문화전당 운영 인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책임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규모를 크게 축소한 문화부 직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직제 개정안 시행에 맞서 상위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유무죄 판단은 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U대회 성공 시민 감사 콘서트 8월로 연기

초청 대상자 일정 등 차질

19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U대회 성공 시민 감사 콘서트'〈광주일보 16일자 2면〉가 오는 8월로 연기됐다.

광주시는 16일 "광주 U대회를 빛낸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각종 소음을 참아주신 선수촌 주변 시민 등을 초청하는 '감사 콘서트' 일정을 연기하게 됐으며,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가수 인순이, 김경호, 신효범, 박현빈, 걸그룹 레인보우, 밍스 등 12개 팀이 출연하는 감사 콘서트를 계획했으나, 초청 대상자 일정 등이 차질을 빚어 연기했다. /박진표기자 lucky@